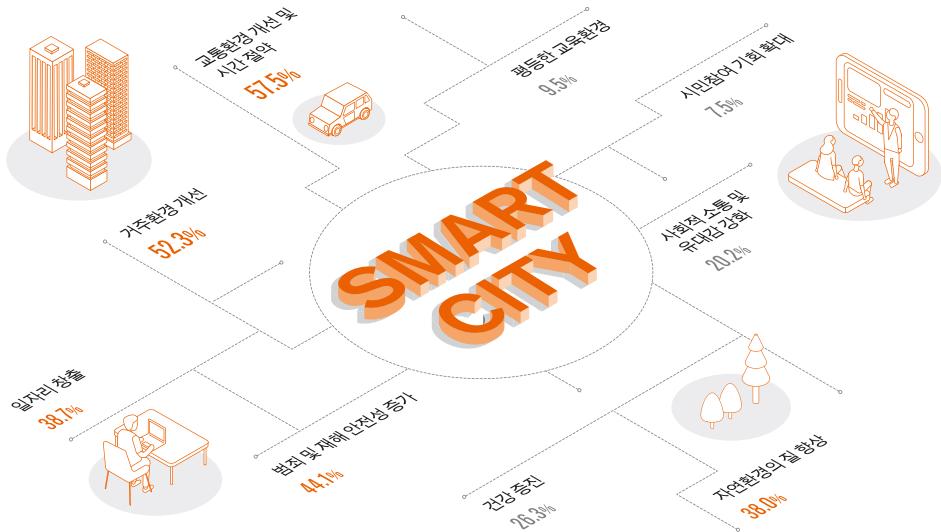


# 시민들이 원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는 무엇일까?

건축공간연구원은 스마트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 및 계획하고 있는 15개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. 거주지와 성별, 연령을 고려하여 유의 및 비례할당을 통해 시민 1,1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7일간 온라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, 통계자료실을 통해 조사 및 분석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.

## Q 스마트도시가 지향해야 할 서비스 목표는?

1+2+3순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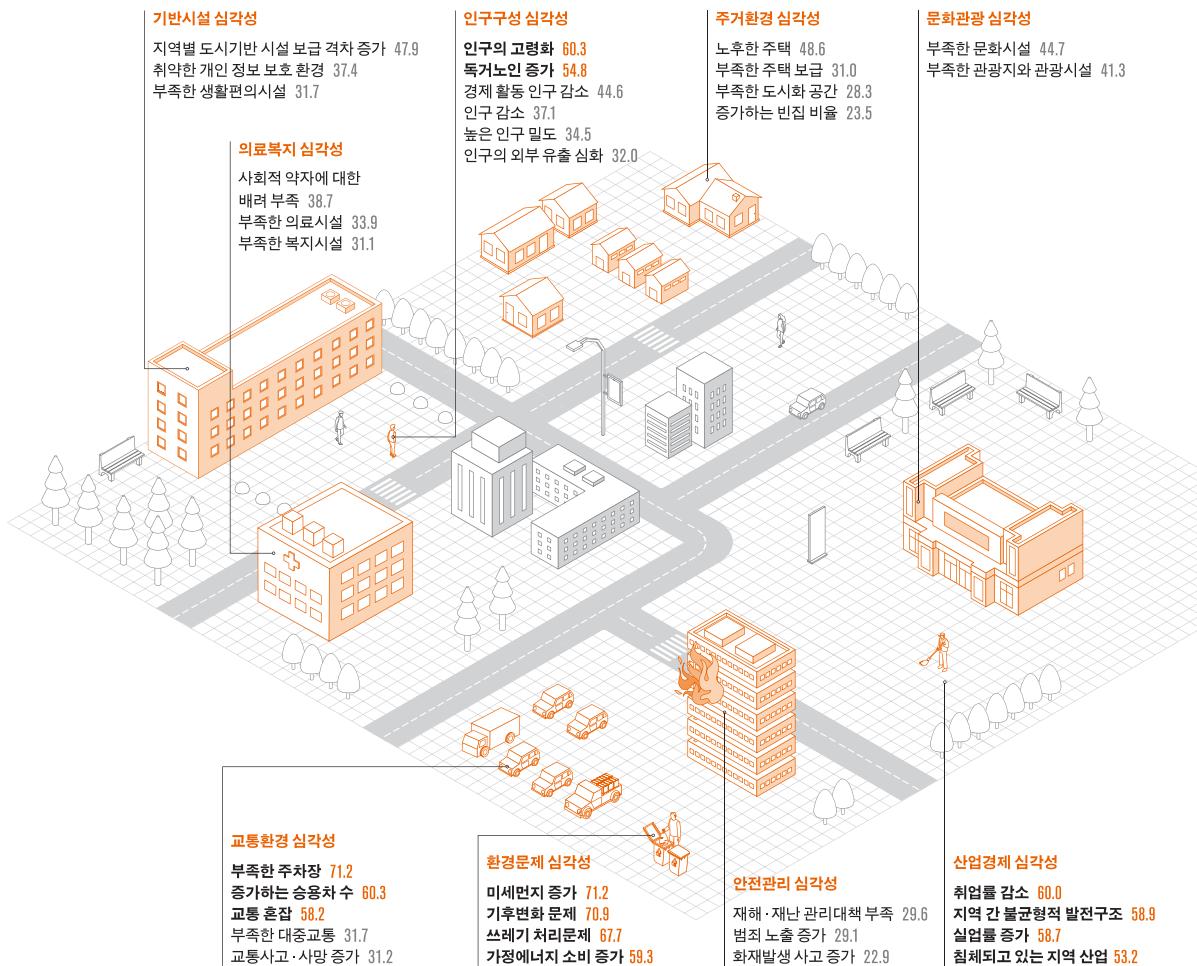


## A 교통, 복지, 안전, 근로, 환경 분야의 질적인 개선을 요구

스마트도시의 체감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도시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'교통환경 개선 및 시간 절약'(57.5%)과 '거주환경 개선'(52.3%), '범죄 및 재해 안전성 증가'(44.1%), '일자리 창출'(38.7%), '자연환경의 질적 향상'(38.0%) 순으로 나타나 교통, 복지, 방범·방재, 근로·고용, 환경 분야의 질적인 개선을 스마트도시가 갖추어야 할 중점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다.

## Q 시민들이 느끼는 거주지역의 도시문제는?

단위: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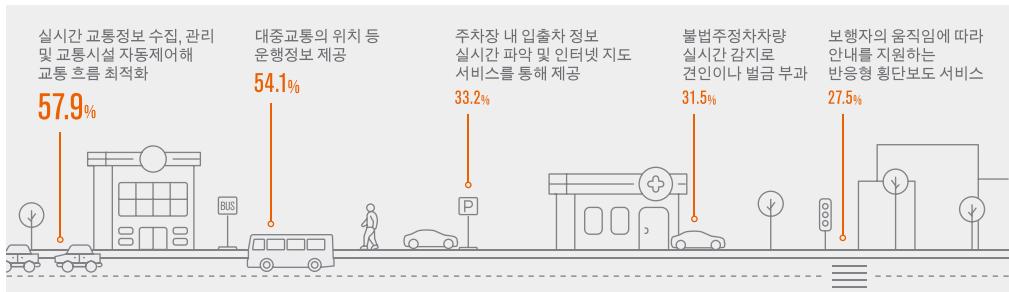


## A 교통, 복지, 균로, 환경 분야에 대한 도시문제를 심각하게 인식

주민들은 미세먼지, 기후변화, 쓰레기, 주차, 고령화, 일자리 분야의 도시문제 해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범죄나 재난 재해 등 생명과 관련되고 재산의 위협이 되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빙집, 도시공간의 부족 등 주거환경에 관련된 사항은 상대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않았다. 특히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통합플랫폼 연계서비스 등 스마트도시서비스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안이 되고 개발·제공되고 있으며 그 수준도 높아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.

## Q 교통 분야의 선호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는?

1+2+3순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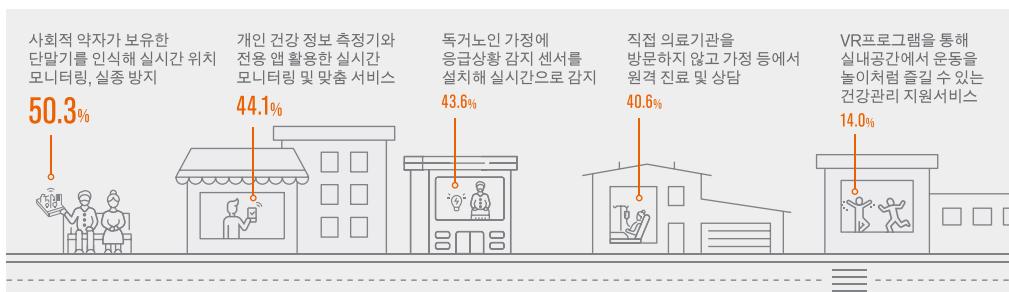


## A 실시간 교통 및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요구

스마트 교통 서비스를 체감하는 비율은 41.2%로 인구 규모가 큰 지역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. 선호하는 스마트 교통 서비스는 '실시간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을 통한 교통 흐름 최적화'(57.9%), '대중교통 운행정보 제공'(54.1%), '주차장 입출차 정보 실시간 제공'(33.2%)이 높게 나타났다. 반면, 최근 많이 언급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PM(Personal Mobility, 15.2%), 자율주행(13.7%)과 관련된 서비스의 선호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
## Q 보건·복지 분야의 선호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는?

1+2순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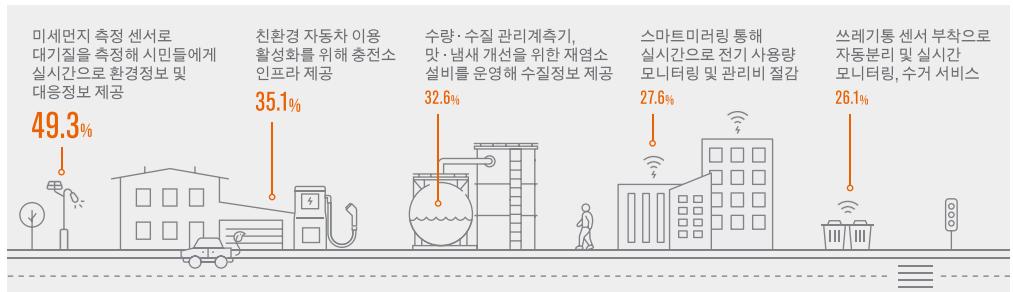


## A 치매 및 독거노인 케어,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을 요구

스마트 보건·복지·의료 서비스를 체감하는 비율은 17.5%로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에서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시민들이 보건·의료·복지 분야에서 선호하는 서비스는 '사회적 약자 실종 방지'(50.3%), '개인 건강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맞춤 서비스'(44.1%)로 나타났으며, 특히 소도시에서는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## Q 환경 분야의 선호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는?

1+2순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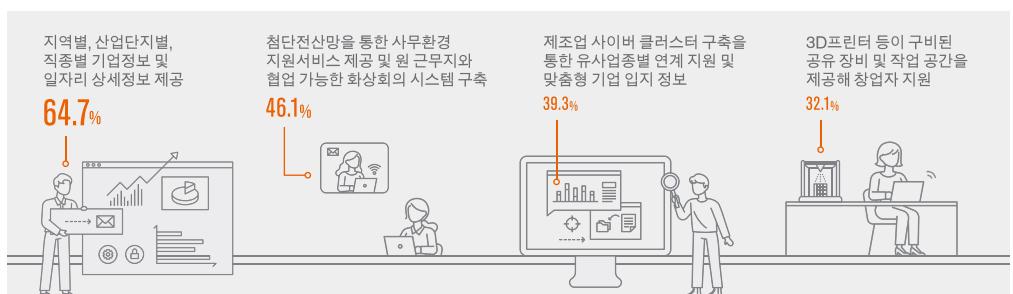


## A 미세먼지 및 수질 등의 환경 정보와 전기자동차 충전소 정보 제공 서비스 요구

환경 분야의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대한 체감비율은 21.4%로 인구 규모가 커질수록 체감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, ‘미세먼지 등 환경정보 제공’(49.3%), ‘전기자동차 충전소 정보 제공’(35.1%), ‘수질 관리 및 정보 제공(32.6%)’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## Q 근로·고용 분야의 선호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는?

1+2순위



## A 일자리 상세정보 등 신뢰할 수 있는 고용정보 제공을 요구

스마트 근로 고용 서비스를 체감하는 비율은 15.7%로 나타났고, 선호하는 서비스로는 ‘기업 및 일자리 상세정보 제공’(64.7%), ‘원격지 근무 등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’(46.1%)이 꼽혔다. 다만, 근로·고용 분야에서의 현재 상용되고 있는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의 종류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,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.